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2015. 1. 18~25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요 4:7)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한국 정교회 한국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1월 18일 ~ 25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요 4:7)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목 차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4
- 주제 성구 · 6
- 주제 소개 · 8
-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3
- 일치 기도 예식 · 16
-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 26
- 제1일 <선포>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요4:4 참조) · 26
- 제2일 <고발1>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요4:6 참조) · 28
- 제3일 <고발2>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요4:17 참조) · 30
- 제4일 <극복> 그러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다(요4:28 참조) · 32
- 제5일 <예고>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습니다
 (요4:11 참조) · 34
- 제6일 <증언>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4:14
 참조) · 36
- 제7일 <증언>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요4:7 참조) · 38
- 제8일 그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4:39
 참조) · 40
- 브라질의 교회 일치 운동 상황 · 42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 46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50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직제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일치 기도 예식서가 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의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벌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주제 성구

요한복음 4장 1~4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주제 소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 4:7)

1.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여행, 피약별, 피곤함, 목마름 ……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이는 모든 인간의 요청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고(요1:14),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자 당신 자신을 비우신(빌2:6-7)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요4:7)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주신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4:14).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리에게 다른 우물물을 맛보고, 우리의 물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 권해 보라고 초대한다.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기도와 만남과 대화를 위한 탁월한 시기이다. 상대방, 곧 다른 이에게 있는 풍요로움과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일치의 은사를 청하는 계기가 된다.

브라질 속담에는 손님이 떠날 때마다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시원한 물, 마테차¹⁾, 커피, 테레레²⁾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은 다른 이를 환대하고 대화하며 공존하려는 뜻을 나타낸다. 브라질의 모든 지역에서는 환영과 나눔의 표시로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성경에 나오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마10:42 참조).

1) 마테차(또는 시마향[chimarrão])는 예르바 마테의 잎을 말려 우린 브라질 남부의 전통차로, 보통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겨 마신다.

2) 테레레를 마시는 방법은 마테차와 비슷하나 뜨거운 물 대신에 찬물을 사용한다.

일치 기도 주간 동안 신자들과 공동체들이 이 자료를 우리가 제안한 대로 공부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불리는 예수님 계획의 대화적 차원을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자료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여 다른 이의 정체성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이나 문화는 혼자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는 말씀에서 떠오르는 모습은 상보성(相補性)을 말해 준다. 다른 이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그의 존재 방식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이는 서로를 풍요롭게 해 주는 은사들을 나누게 해 준다. 다른 이의 은사를 거절하면 사회와 교회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지치고 목마른 채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방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도움이 필요하시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나라에 있고, 우물은 그 여인의 민족과 전통에 속한 것이다. 그 여인은 두레박을 소유하고 있어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여인 또한 목이 마르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났다. 이 만남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 모두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물을 드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유다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상보성은 우리 삶 안에서 더욱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각각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 공동체, 문화, 종교, 민족 집단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촉구한다. 또한 이는 인류와 그 구원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도록 가르친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는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려면 서로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윤리적 행동을 담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도와 그리스도교 영성에 우리를 열어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 추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재촉한다.

2. 브라질의 교회 상황과 종교적 배경

브라질은 매우 종교적인 나라로 여겨질 수 있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여러 사회계층과 인종들 사이의 관계가 '온정'을 특징으로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브라질은 불관용이 점점 더 확산되는 시대에 놓여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수자들과 취약계층, 곧 흑인, 젊은이, 동성애자, 아프리카계 브라질 종교의 신자, 여성,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관용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1995년 10월 12일 브라질의 수호성인이신 아파레시다의 성모 축일에 신오순절 교회 소속의 한 감독이 전국 텔레비전 방송 도중에 성모상을 발로 걷어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이 있는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타 종교, 특히 아프리카계 브라질 전통의 종교와 원주민 전통의 종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불관용을 드러내는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의 밑바탕에는 종교 시장의 경쟁 논리가 있다. 브라질에서 일부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점점 더 서로에 대하여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 더 잘 등장하려는 경쟁, 새 신자 모집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용 공적 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로 이 현상을 지적하며 말씀하셨다. “영적 세속성³⁾의 영향으로 권력과 특권과 쾌락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일부 그리스도인은 이에 방해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복음의 기쁨」 [Evangeli Gaudium], 98항)

이러한 종교적 경쟁 상황이, 오랜 전통을 지닌 그리스도교 교파들에게 현실적인 영향을 주면서 신자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강하고 역동적인 교회에 신자 수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부추겼다. 그 결과, 오랜 전통을 지닌 교회들 가운데 상당 수가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의 추구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적⁴⁾인 그리스도교 교파들은 특히 정당 정치에 공을 들이고, 일부 경우에는 직접 정당을 창당하기도 한다. 또한 대지주와 기업농과 금융 시장과 같은 특정 이익 집단과 연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 생활이 교파적 색깔을 띠어 정교분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분열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의 논리가 '조합주의'의 논리와 교파적 이익 옹호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3) maker-driven Christianity

4) spiritual worldliness

2010년에 실시한 공식 인구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86.8%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브라질에서 폭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브라질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를 비폭력적 태도와 인간 존엄 존중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는 다음의 자료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에서는 43,700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이들 가운데 41%는 자기 집에서 희생되었다.

원주민에 대한 폭력: 원주민에 대한 폭력은 종종 대규모 수력발전개발과 기업농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오늘날 브라질에 널리 퍼진 개발방식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원주민 영토의 구획과 인정을 매우 더디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2011년에 발표된, 브라질 가톨릭 주교회의의 관련 기관인 토지사목위원회(CPT)가 발간한 『브라질 원주민에 대한 폭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원주민 영토 가운데 450곳이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발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조에 명시된 ‘원주민과의 적절한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사목위원회의 보고서는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민 500명이 살해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62.7%가 마투그로수두술 주에서 발생하여, 해마다 이곳에서 평균 55.8명의 원주민들이 살해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불관용과 맞서 싸울 때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이는 곧 합법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복음에 충실하며, 항구한 화해와 평화의 길인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다.

3. 해석학적 선택

‘교회 일치 성경 연구 센터’(CEBI)에서 채택하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상황적 성경읽기⁵⁾가 있다. 이는 학문적이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방식으로 성경 본문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성경의 신학과 그 해석의 출발점은 일상생활이다. 바로 엠마오로

5) the Contextual Reading of the Bible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눅24:13-24 참조).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우리는 상황에서 출발하여 성경 본문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방법론적 여정에서 성경은 우리 발에 등불이며, 우리 길에 빛이다(시편 119[118],105 참조).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의 길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삼아야 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해 준다.

4. 8일 동안의 여정

우리가 제안하는 앞으로 8일 동안의 여정은 선포로 시작되어, 고발, 극복, 증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주간은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양성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그리고 나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일부 죄의 상황을 고발한다. 셋째로, 배척이라는 죄스러운 태도의 극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향하여 내딛는 한 걸음이 된다. 끝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증언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것을 재촉하신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이끄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일치 기도 주간을 공동 주관하는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양직제위원회는 '브라질교회협의회'(CONIC)에 2015년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준비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자료의 준비를 위하여 브라질교회협의회는 관련된 교회 일치 운동 기관들과 본 협의회 회원교회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진을 임명하여 작업을 맡겼다. 이 실무진은 2012년 2월과 4월에 모임을 가졌고 7월에 그 임무를 마쳤다.

공동 주관하는 두 기구가 임명한 국제준비위원회는 자료 준비를 마무리하고자 2013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시 외곽의 빈민 지역에 위치한 산타 모니카 호텔과 회의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아우구스티노회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은 이수도회가 그 주변 지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위한 자원을 마련해 주고 있다.

국제준비위원회는 브라질교회협의회가 제안한 자료를 편집하는 작업과는 별도로 '대중 교육과 복음화를 위한 교회 일치 센터'(CESEP)를 방문하여 소장과 학생들을 만났다. 국제준비위원회는 또한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1964-1985년)에 자행된 인권 침해의 규명을 위한 교회 일치 운동, 특히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공헌에 관하여 한 차례 회의를 갖기도 하였다.

국제준비위원회는 조제 오스카 베오조(José Oscar Beozzo) 신부와 '대중 교육과 복음화를 위한 교회 일치 센터'의 직원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또한 아니발도 파딜라(Anivaldo Padilha) 씨와 마갈리 두 나시멘투 쿠냐(Magali do Nascimento Cunha) 박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두 분은 감동적인 증언으로 국제준비위원회 위원들이 2015년 자료의 주제의 사회적 교회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국제준비위원회는 특별히 다음의 기구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 **브라질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of Brazil)**
 - 마노엘 주앙 프란시스쿠(Manoel João Francisco) 주교<의장/ 로마가톨릭교회>
 - 엘테르 엘리네테 파에스 밀레르(Elder Elinete W. Paes Miller)<제2 부의장/ 장로교회>
 - 로미 마르시아 벤케(Romi Márcia Bencke) 목사<사무총장/ 루터교회>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과 관련하여 브라질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의 첫 접촉을 주선하여 주신 브라질교회협의회 제1 부의장 프란시스쿠 드 아시스(Francisco de Assis) 주교(영국성공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라틴 아메리카 교회협의회 브라질 지부(Brazilian Regional Office of the Latin American Council of Churches, CLAI)**
 - 엘테르 다를리 알베스(Elder Darli Alves)<사무총장/ 장로교회>
- **교회 일치 성경 연구 센터(Ecumenical Centre for Bible Study, CEBI)**
 - 오자 바로스(Odja Barros) 목사<상임위원/ 침례교회>
 - 에드밀슨 시넬루(Edmilson Schinelo)<사무국장/ 로마가톨릭교회>
 - 파울루 우에티(Paulo Ueti) 박사<고문/ 영국성공회>
- **자문과 양성을 위한 교회 일치 센터(Ecumenical Centre for Advise and Formation)**
 - 클라우디우 베케르(Cláudio Becker)<고문/ 루터교회>

이 자료를 영역해 주신 루터교회의 루스마리나 캄포스 가르시아(Lusmarina Campos Garcia) 목사와 도널드 넬슨(Donald Nelson) 목사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1982년에 설립된 브라질교회협의회는 로마 가톨릭교회, 브라질 복음주의 루터교회, 브라질 성공회, 연합 장로교회, 안티오키아의 시리아 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교회협의회 의 사명은 브라질 교회들의 일치를 위하여 일하면서도 브라질의 현실에 함께하고 이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질교회협의회는 인간 존엄과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노력으로 복음 메시지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는다.

브라질교회협의회는 브라질 교회들 사이의 교회 일치적 관계를 증진하고 도모하며 인권을 위한 공동 증언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브라질교회협의회 회원 교회들 이외에 형제 회원으로 관련된 주요 교회 일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 **라틴 아메리카 교회연합회**(Latin American Council of Churches, CLAI)는 1982년에 설립되었고, 교회들과 교회 일치 운동 단체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돕고 일치와 증언과 섬김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종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교회 일치 성경 연구 센터**(Ecumenical Centre for Bible Study, CEBI)는 1979년 설립되었고, 대중의 성경 읽기를 심화하고 강화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교회 일치 성경 연구 센터는 대중의 성경 읽기 방법론을 통하여 대중 단체들의 의사 표현과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명 증진, 특히 브라질에서 가장 배척받는 사회 집단들을 대상으로 생명 증진에 초점을 맞춘 영성을 도모하고 있다.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이 일치 기도 예식의 양식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시작할 때에 사용될 수도 있고, 지역 공동체들이 선택한 또 다른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결정 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고 있던 우물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 예식을 준비한 브라질 교회 일치 단체는, 우리가 간구하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인 일치의 모습으로 길과 물이라는 두 상징의 사용을 권유한다. 브라질 교회 일치 단체는 예식에 힘을 불어넣는 다음과 같은 시작 질문들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택하여야 하는 일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의 다양성을 바르게 존중하는 일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 일치의 길에 물이 가득 찬 우물이 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지쳐서 찾으신 물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물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길는 물은 갈증을 풀어 주고 사막에 꽃을 피우는 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도는 물로 우리가 세례 때에 받은 생명수이다.

요한복음 4장 1-42절의 말씀은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 긴 복음구절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읽거나 또는 성극으로 각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복음 후 묵상에는 거행 단체의 규모에 따라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

- 소집단으로 모여 위의 시작질문들을 바탕으로 복음 나누기를 하고 나서 다시 전체 회중으로 돌아가기.
-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 질문들을 고려한 강론이나 설교.

길과 우물

예식이 거행되는 장소의 중앙 통로 바닥을 초와 꽃과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장식하여 회중 앞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 길 가운데 커다란 수반을 두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물 향아리를 마련한다. 회중의 다양성을 뜻하고자 물 향아리는 서로 다른 것으로 준비할 수 있다.

예식 집전자들은 이 길을 따라 입당 행렬을 한다. 예식에 참여하는 교회의 대표들이 ‘우물’ 곁을 지날 때 각 물 향아리에 담긴 물을 수반에 천천히 붓는다. 이 물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온 것으로, 불완전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를 상징한다. 예식 시작 때에 이 동작을 소개해야 하는데 강론 때에 언급할 수 있다.

이 길은 죄의 고백의 준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회중이 모인 자리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 길로 나와 용서를 청한다.

강복 뒤에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평화와 우정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식을 마칠 수 있는 연회 장소로 이동한다.

예식 구조

※참고: 청각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식은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I. 입당 성가/준비
 - 환영 인사와 일치 기도 주간 주제 소개

- II. 시작 예식
 - 죄의 고백과 자비송

- III. 복음 선포

- IV. 신앙과 일치 안에서 응답하기
 - 신앙 고백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사도 신경, 또는 세례 서원 갱신과 같은 다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
 - 청원 기도
 - 봉헌
 - 주님의 기도(낭송이나 노래)

- V. 강복과 평화의 인사와 파견
 - 퇴장 성가

예식 순서

I. 입당 성가/준비

- + 인도자
- 해설자
- ◎ 회중

입당 성가

예식을 시작할 때 촛불을 켜 둔다.

환영 인사와 일치 기도 주간 주제 소개

해설자가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기도 주제를 소개한다.

- 모두 일어서서어 집전자들이 길을 따라 입당하는 동안 입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교회의 대표들이 '우물' 곁을 지나갈 때, 대표들은 각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을 수반에 천천히 부을 것입니다. 이 물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온 것으로,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실재하는 우리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식 참여자들이 적을 경우, 가능하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소속 교회를 밝히게 한다.

II. 시작 예식

기도로 초대⁶⁾

6) 이네스 드 프랑사 벤토(Inês de França Bento)가 작성한 기도문을 다듬은 것이다. Rubem Alves (Org), 『예배 방식, 생명의 거행, 성령강림』(*Culto Arte, Celebrando a Vida, Pentecostes*), Vozes 편집, Petrópolis, 리우데자네이루, 2002, 21면.

+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다양성을 깨닫게 하는 일치의 숨결을 저희에게 불어 넣어 주소서.

◎ 서로 환대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관용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 갈라진 것은 하나로 만들고 다친 것은 낫게 해 주는 불길을 저희에게 불어 넣어 주소서.

◎ 저희가 미움을 극복하고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총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 죽음에 맞서고 이를 물리치는 생명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아멘.

죄의 고백과 자비송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겸손되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께서는 다양성이 짝트고 변성하는 이 물에 깃들어 계십니다. 저희가 합당한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에 해가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노래).

○ 자비로우신 예수님,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기쁨을 주시고 경청하시는 스승이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나이다. 저희가 그동안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못하고,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연대와 형제애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계속 배척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노래).

○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시고,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시나이다. 탄식하며 자유와 쉼을 호소하는 주님의 피조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함께 걸으며, 고통 속에서 치유와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생명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노래).

十 오, 자비와 은총의 샘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하느님 백성의 힘을 되찾게 해 주는 생명수의 원천으로 변화하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Ⅲ. 시작 예식

요한복음 4장 1-42절 선포 또는 성극

묵상 또는 강론백

Ⅳ. 신앙과 일치 안에서 응답하기

신앙기도

신앙 고백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사도신경, 또는 세례 서원 갱신과 같은 다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

청원 기도

회중은 브라질 원주민인 과이쿠르족의 선율로 '자비송'을 부르거나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 저희 개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빛을 청하오니, 저희가 다른 이들을 더욱 환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 주소서.
- ◎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노래).
-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환대와 일치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뜻을 당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 ◎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노래).
-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관대하고 비폭력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 ◎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노래).
-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이어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소서.
- ◎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노래).
-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 이방인이 되시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생명수를 주소서.

◎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노래).

지역 공동체는 다른 기도를 추가할 수 있다.

봉헌

十 저희는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자비의 징표로 저희 삶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 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은총을 전하는 데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하소서.

[지역] 공동체에 봉헌물을 전달한다.

十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시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저희가 사명을 계속해 나가고, 저희가 모든 이, 특히 저희와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말에 충실히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저희 마음 안에서 온갖 폭력과, 다른 이들의 인간 존엄을 배척하고 폄하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없애 주소서. 저희 교회들이 환대의 자리가 되어 축제와 용서, 기쁨과 온유, 힘과 신앙을 날마다 실천하고, 이를 저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소서.

◎ 아멘.

참고: 지역 공동체는 지역 전통에 따라 봉헌물을 받도록 한다. 제대 앞에 마련 된 화려한 색깔의 천 위에 봉헌물을 가져와 놓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봉헌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에서 예식 주관 담당자들이 선곡한 노래를 부른다.

주님의 기도

V. 강복과 평화의 인사와 파견

강복

十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음악으로, 여러분의 코를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고 여러분의 혀는 희망을 보여 주는 노래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일이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며,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지키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어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시고 냉정한 마음을 녹여 주시며,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의 사랑의 불을 밝히고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 굳은 희망,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를 빕니다.

◎ 아멘.

평화의 나눔

十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를 맞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환대

를 실천하라고 부르시나이다. 하나님, 저희에게 평화와 평온을 주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인 일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나아가며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퇴장 성가

8일 간의 묵상과 기도

제1일 <선포>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요4:4 참조)

- 창 24:10-33 우물가의 아브라함과 리브가
 시편 42(41)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암사슴처럼
 고후 8:1-7 마게도나 교회들의 후한 인심
 요 4:1-4 그 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셨다. 사마리아는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은 여러 인종과 종교가 뒤섞여 있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리적 문제를 떠나서 이는 예수님의 선택이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다른 이, 차이가 나는 이, 종종 위협으로 여겨지는 이를 만나러 가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오래되었다.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남부의 [유다] 왕국과 관계를 끊었다(왕상12장 참조). 나중에 앗수르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강제 추방한 뒤, 저마다 자기 신들을 모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였다(왕하17:24-34 참조).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로 순수하지 못한’ 민족이 되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비난한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요8:48)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요4:8 참조). 기원전 128년 경 유다 왕국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왕이 그리심 산 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장소로 세운 성전을 파괴하였을 때 과거의 상처가 훨씬 더욱 깊어졌다. 적어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가지 경우에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마을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눅9:52 참조). 이렇게 유다와 사마리아 양쪽 모두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요한복음사가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내리신 결정임을 분명히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민족을 뛰어넘어 손을 내미신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멀리하고 우리와 닮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빈곤을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 주신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이들과 나누는 대화이다.

묵상 질문

-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 내가 속한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만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서로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기도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다른 교회들에 속한 형제자매를 만나고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저희가 모든 교회와 모든 문화에서 배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치의 원천이심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일치를 저희가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제2일 <고밭1>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요 4:6)

- 창 29:1-14 우물가의 야곱과 라헬
- 시편 137(136)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 고전 1:10-18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 요 4:5-6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걷느라 지치셨다.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에 앞서 유다 지방에 계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이 소문은 예수님께 약간의 긴장과 불편함을 가져다주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게 된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길을 걷느라 지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기로 하셨다. 이 피곤함은 당신 자신에 대한 소문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쉬고 계신 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우물가에 다가왔다. 이 만남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났다. 이 야곱의 우물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영성에서 상징적인 장소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시작하신 대화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다.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요4:21-23).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들은 함께 일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경쟁과 다툼을 벌이는 관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를 브라질에서 최근 몇 해 동안 체험해 왔다. 일부 공동체는 새 신자들을 끌어모으고자 자신들의 장점과 자기 신자들에게 생기는 이익을 떠벌린다. 심지어 일부 공동체는 그들 교회의 규모와 힘과 신자 숫자가 클수록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만이 진실한 신자들이라 자처하기까지 한다. 이는 결국 폭력을 야기하고, 타 종교와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러한 시장 쟁탈은 교회들 사이에 불신을 낳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다른' 공동체들은 적이 되어 버린다.

진실한 신자들은 누구인가? 진실한 신자들은 경쟁의 논리, 곧 '누가 낫고 모자라는가?'의 논리가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대어 휴식을 취하며 다툼과 경쟁과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 줄 '우물'이 필요하다. 또한 진실한 신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묵상 질문

- 우리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기대고, 다툼과 경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공동 '우물'을 찾을 수 있는가?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들은 자주 경쟁의 논리에 이끌립니다.

저희가 저지른 오만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는 일등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에 지쳐 있습니다.

저희가 우물가에서 쉴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 걸어 올린 일치의 물로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혼돈의 물 위를 감돌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다양성 안에 일치를 가져다주시게 하소서.

아멘.

제3일 <고밭2>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요4:17)

왕하 17:24-34 사마리아가 앓수르에 정복되다.
 시편 139(138):1-12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롬 7:1-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었습니다.
 요 4:16-19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해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제 대화는 여인의 혼인 생활을 주제로 한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남편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요4:16)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남편들은 그 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가? 그 여인은 과부였는가? 슬하에 자녀가 있었는가? 이 성경구절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삶이 지닌 전혀 다른 차원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셨음에도 그 여인에게 마음을 열고 만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대답에 도덕적인 해석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그 너머로 이 여인을 이끄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태도가 변화한다. 서로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빚어진 장애들이 사라지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자리를 잡는다. 이것은 바로 신뢰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곧 여성을 낮추어 보고 소외시키는 태도에 맞서는 질문들과,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일치의 여정에 장애가 되는 차이에 관한 질문들이다.

묵상 질문

-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스러운 구조는 무엇인가?
-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자리와 역할은 무엇인가?
- 여성과 소녀들이 피해자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주님,
저희가 어찌 주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 무슨 노래를 불러 드릴 수 있겠나이까?
어떠한 말로도 주님을 표현할 수 없나이다.
어떠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챌 수 있겠나이까?
어떠한 지성도 주님을 이해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표현할 길 없는 분이시나이다.
말해지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나이다.
생각되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나이다.
말을 할 줄 알든 모르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선포하고,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고, 탄식하며 그리워하고,
모든 존재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주님께 고요한 찬미를 드리나이다.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가 어찌 주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나이까?
아멘.

-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기도로 추정

제4일 <극복>

그러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다(요4:28 참조)

- 창 11:31-12: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다.
- 시편 23(22) 주님은 나의 목자
- 행 10:9-20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 요 4:25-28 그러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다.

해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리와 다른 이들, 낯선 이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생명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의 규율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우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자리를 떴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규율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관습적인 행동 양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일을 이룩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린다. 이는 그 여인이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여인은 사회가 자신에게 부과했던 역할에서 자유로워졌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다. ‘떨치고 나아가는 것’은 신앙 안에서 더욱 굳세고 현명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가 길으러 온 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 더 중요한 보화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낯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더 큰 부요함을 알아본 것이다.

우리에게 낯선 것과 다른 이들이 지닌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선함, 더 나아가 거룩함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지닌 은사의 선함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묵상 질문

-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물동이들은 무엇인가?

- 우리가 그러한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주된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다른 이와는 만남이 은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일 <예고>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습니다(요한 4:11)

- 창 46:1-7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 시편 133(132)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 행 2:1-11 성령강림절
- 요 4: 7-15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습니다.”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도움이 필요하시다. 오래 길을 걷느라 피곤이 밀려오고, 대낮의 뜨거운 열기에 기진맥진하시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시다(요4:6 참조). 게다가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낯선 땅에 계시고, 우물도 여인이 속한 민족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이 마르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지적한 것처럼 물을 길어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물이 필요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모든 답을 알고 있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 머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우물에 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신비의 우물을 더욱 깊이 파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이를 혼자 할 수 없다. 우리 형제자매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의 도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신비의 깊이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신앙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이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추구는 그 어떠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깊은 물에 닿기 위한 방법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욱 일치를 이루어 서로의 두레박을 나누고 유대의 끈을 함께 묶으면 하나님의 우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브라질 원주민의 전통은 우리가 노인의 지혜와 더불어 어린이의 호기심과 순수함을 배우도록 가르친다. 정말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우리는 새로

운 것을 배우는 데 열린 어린이와 같이 된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열려 있다(마18:3 참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여야 한다. 곧 솔선하여 낫선 땅으로 들어가 이방인이 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야 한다.

묵상 질문

-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교회에 도움을 주거나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상황들을 기억하는가?
- 여러분의 교회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가? 그러한 주저하는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기도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저희가 함께 유대의 끈을 더욱 강하게 이을수록
저희의 두레박도 당신의 거룩한 물 안에
더욱 깊게 드리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지닌 은사가 하나님의 해아릴 길 없는 신비의 표현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우물가에 둘러앉아
저희를 일치와 평화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증을 채워 줄 물을 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아멘.

제6일 <증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4:14)

- 출 2:15-22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은 모세
- 시편 91(90) 주님을 피신처로 삼는 이들의 노래
- 요일 4:16-21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 요 4:11-15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해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시작된 대화는 예수님께서 물을 약속하시는 대화로 이어진다. 이 복음서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또다시 마실 물을 청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꿰뚫리신 옆구리에서 물이 솟는 약속된 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물, 이 생명을 세례 때에 예수님께 받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물, 다른 이들에게 주고 그들과 나누도록 우리 안에 샘솟는 생명이 된다.

여기에 한 브라질 여성의 증언이 있다. 이 여인도 그 물을 마셨고 그 여인 안에서 이 물은 샘이 되었다.

캄푸 그란데 출신의 간호사인 로미는 오순절 교회의 목사였다. 어느 일요일 밤, 로미의 이웃에 살던 세메이라는 16세의 원주민 소녀가 허름한 판잣집에서 혼자 사내 아이를 낳았다. 로미가 세메이를 발견했을 때 이 소녀는 바닥에 누워 하혈을 하고 있었다. 로미는 세메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세메이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연락은 되었으나 그 누구도 세메이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세메이와 그 아기는 갈 곳이 전혀 없었다. 로미는 수수한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로미는 세메이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캄푸 그란데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편견이 심하였다. 세메이는 계속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로미는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러자 로미의 이웃들도 차츰 세메이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가톨릭 신자인 베로니카라는 또 다른 젊은 엄마는 세메이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

일 수 없을 때 대신 젖을 물려 주었다. 세메이는 아들의 이름을 루크 나타니엘이라고 지었고, 집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자 도시를 떠나 농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메이는 로미와 그 이웃이 보여 준 호의를 잊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로미가 세레 때에 받은 이 물은 로미 안에서 세메이와 그 아들을 위한 생명수의 원천이 되었다. 로미의 증언에 힘입어 로미의 이웃들 또한 이 세레수가 그들 안에서 원천, 샘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는 세레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교회 일치적 증언이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해 준다.

형제자매애를 키우려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은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 일치적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해 준다.

묵상 질문

-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요4:14) 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수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보는가?
- 교회들이 생명수의 원천이 되고자 한목소리로 말하여야 하는 공적 생활의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정의와 평화와 연대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희가 일치의 원천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시게 해 주소서.

장벽들이 다리로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의 일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7일 <중언>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요4:7)

민	20:1-11	므리바의 이스라엘 자손들
시편	119(118):10-20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오리다.”
롬	15:2-7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요	4:7-15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해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 심지어 다른 종교 전통을 지닌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물에 깊이 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 우리가 낯선 이들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우리 이웃의 손안에 넣어 두시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저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 이미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과 그 선의 안에 있는 때도 있다. 브라질 원주민 과라니족의 언어를 살펴보면, 삶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는 ‘종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현이 지닌 글자 그대로의 뜻은 ‘우리의 훌륭한 존재 방식’(ñande reko katu)이다. 이는 종교를 포함한 문화 체계 전체를 나타낸다. 따라서 종교는 과라니족 문화 체계에 속하며, 그들의 사유 또는 존재 방식이다. 종교는 공동체를 향상시키거나 발전시키며 그 ‘훌륭한 존재 방식’으로 이끄는 모든 것과 관련된다. 과라니족은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처음에는 “길”(행 9:2)로 불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길’, 또는 ‘훌륭한 존재 방식’은 우리의 삶 전체에 조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묵상 질문

-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경험이 어떻게 풍요로워졌는가?
-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원주민의 지혜나 다른 종교 전통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기도

생명의 주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부르시는 분이시여,

저희의 안전이 무기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오게 하소서.

저희 힘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게 하소서.

저희의 부요함이 금전이 아니라 나눔에서 나오게 하소서.

저희의 길이 야망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오게 하소서.

저희 승리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게 하소서.

저희의 일치가 권력 추구에 있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겸손한 증언에 있게 하소서.

저희가 열리고 확신에 차서 모든 피조물의 존엄을 지키고,

이제와 영원히 연대와 정의와 평화의 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소서.

저희 폭력의 희생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저희 모두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라질 교회일치위원회가 정의를 통한 평화의 길의 첫 단계로 가난 종식을 호소하고
고자 작성한 기도문의 수정본)

제8일 <증언>

그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4:39 참조)

- 출 3:13-15 불타는 떨기 결의 모세
- 시편 30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 롬 10:14-17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요 4:27-30/39-40 그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해설

변화된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선교에 나선다. 그는 동족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린다. 그의 증언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4:39 참조). 그의 증언의 힘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변화된 삶에서 나온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분에게 마음을 연 덕분에 그 이방인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솟는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요4:14 참조).

선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4년 2월 1일 Neocatechumenal Way를 접견하신 자리에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선교는 개종 권유가 아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이들은 사랑의 대화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려 하고, 차이를 존중한다. 선교사가 되려면 우리는 우물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생명수를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수의 우물에서 우리의 생명을 길어 올린다.

우리의 선교는 말과 더불어 증언하는 삶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작고한 브라질의 에우데르 카마라(Helder Camara) 대주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선포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신자들의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그 여인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그 여인의 말과 변화가 일치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과 증언하는 삶이 진실할 때 세상은 듣고 믿게 될 것이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롬10:14)

묵상 질문

- 일치와 선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일치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기도

생명수의 샘이신 주님,
저희가 말과 삶으로 일치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물이 저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에게서 똑같은 은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시어
저희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웃과의 만남이 언제나 주님과과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일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라질의 교회 일치 운동 상황

브라질의 교회 일치 운동의 탄생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여러 개신교 선교 단체들의 교파 간 협력에서 비롯되었다. 개신교 교회들의 교파를 초월한 협력에 고무되어 1903년 장로교의 에라스무 브라가(Erasmo Braga) 목사가 '복음주의 연맹'과 '그리스도인 노력'이라는 두 기구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다양한 개신교 단체들 사이의 일치 증진과 더불어 복음화와 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이었다. 이 기구들은 또한 종교의 평등이라는 브라질 연방 공화국의 원칙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교파 간 선교 협력을 위한 1916년 파나마 총회⁷⁾는 그러한 노력에 큰 힘을 보탤다. 이 총회를 마치고 '브라질 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여러 교회, 선교 단체, 그 밖의 복음주의 조직들을 포함하여 19개의 교회 공동체들이 참여하였다.

1934년에는 교회 일치 운동을 촉진하고자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이 설립되었다.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이상을 추진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 왔다.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의 설립에는 브라질 감리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브라질 독립 장로교회가 참여하였다. 또한 브라질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1959년에, 사중 복음교회는 1963년에, 브라질 오순절교회는 1968년에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하였다.

선교는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에 따라 '교파 간 관계 협의회'가 설립되어, 서로 다른 단체들과 교회들 사이의 노력이 중복되거나 경쟁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기관들의 선교 활동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았다.

7) 파나마 총회는 에딘버러 국제선교대회(1910년)에 반대하여 열렸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 선교단체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타 교파 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 대회에 초청 받지 못했다. 파나마 총회에 관한 많은 논평 중에서 한스 유르겐 프리(Hans-Jürgen Prien)은 이 총회를 가리켜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열정적인 선교의 종식이라고 평하며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대다수인 환경의 개신교 선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촉구하였다(TIEL, 1998, 43면). 파나마 총회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 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 대회가 있었다.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의 활동 가운데 매우 잘 알려진 또 다른 측면은 회람이다.⁸⁾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은 이 회람을 통하여 브라질 사회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여기에는 토지 개혁, 교육 제도 개선, 문맹 퇴치 교육, 위급 상황 때의 행동 강령이 포함되었다.

청년 교회 운동은 브라질의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려는 이러한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 준 중요한 행사가 바로 1940년대 후반에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청년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브라질 젊은이들은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성경적 신학적 전망을 접하게 되었다.

'세계 기독교 학생 연맹'(WSCF)과 같은 국제 기독교 청년 운동에 더 많은 브라질 젊은이들이 참여한 것은 사회 복음의 신학이 출현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또한 사회 현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경 읽기 모임과 복음의 상황적 이해를 위한 단체들이 점차 생겨나는 데에도 분명한 기여를 하였다. [브라질의 여러]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갈등의 문제들에 어쩔 수 없이 맞서야만 했다.

이렇게 들끓는 상황은 혁명 신학의 수립에 선구자 역할을 한 미국인 신학자 리처드 쇼일(Richard Shaull)의 영향으로 더욱 격심해졌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준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곁에 살기로 결심한 프랑스 가톨릭 사제들이다. 이들은 브라질의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브라질 사회의 문화와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신학의 촉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1953년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 산하에 '교회의 사회 책임 분과'가 마련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이 신설 분과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신앙의 의미를 연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 사업과 복음화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신교의 시각에서 미래를 전망하려는 전국 대회가 네 차례 개최되었다.

이 네 차례 대회의 주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1955년),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1955년), '국가 발전에서 교회의 현존'(1960년), '예수 그리스도와 브라질

8)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은 라틴 아메리카 복음주의 대회(CELA)에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회는 1961년 리마에서 열린 제2차 라틴 아메리카 복음주의 대회이다. 이 대회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34개 교파의 대표 220명이 모였다. 이 대회 동안 '라틴아메리카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위원회'(CELADEC)와 '라틴아메리카 교회사회위원회'(ISAL)가 설립되었다. 특히 후자는 브라질의 교회일치 운동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였다.

혁명 과정'(1962년)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대회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대화 창구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들도 당시 브라질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모여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전개된 교회 일치 운동은 경제 발전의 지배적 모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특징으로 한다. 소수의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고자 '발전'과 '산업화'의 개념이 주창되는 동안, 대다수의 국민은 생산된 재화나 창출된 부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네 차례 대회에서 영감을 받고, 선교와 사회 변화에 중점을 둔 교회 일치 운동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톨릭 잡지는 이 네 차례 대회의 결과를 신기도 하였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신학적 고찰은 교회 일치 운동이 복음화와 사회 참여를 함께 추구하는 여러 교회들의 일치 계획으로 전개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196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브라질 복음주의 연맹은 서서히 와해되었다. 그러나 이 연맹이 촉진한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결과로 브라질 가톨릭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점차 의식하게 되었다. 정치적 탄압에 직면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갈라놓던 교리적 차이가 브라질 사람들이 직면한 절박한 사회 문제에 자리를 내어 주었고, 이는 교회 일치 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군사 독재 체제에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교회 일치 운동 단체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손을 잡고 인권을 수호하고 고문을 반대하며 민주적 개방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회 일치적 연대는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들을 증진하려는 다른 단체들과 계획들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세계교회협의회가 상파울루 대교구와 협력하여 『브라질, 결코 과거를 되풀이 말자』(Brasil Nunca Mais)라는 문서를 마련하였다. 제이미 라이트(Jaime Wright) 목사와 상파울루 대교구장 파울루 에바리스투 아른스(Paulo Evaristo Arns) 추기경이 편집한 이 문서의 목적은 군사 독재가 끝나면서 정치 범죄 관련 법률 문서들이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 탄압 기간에 자행된 고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군사 정권이 저지른 인권 침해의 폭로가 브라질 사회 안에서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억압의 상황과 인권 문제가 브라질 교회 일치 운동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일치 운동에 깊이 참여한 여러 교회의 신학자들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경 연구 분야에서 교회 일치적 협력으로 사회와 교회 안에

서 여성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5년에 가톨릭교회와 브라질 복음주의 루터교회, 성공회 교회와 감리교회의 책임자들이 함께 전국 차원의 교회협의회 설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이는 1982년 '브라질 교회협의회'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브라질 교회 일치 운동 전반에서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회원 교회들의 유기적 관계의 증진을 위한 교회 일치 운동의 제도적 성격을 나타낸다.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많은 과제들 가운데에는 교회들의 모든 사목 활동 분야에 교회 일치 차원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있다.

브라질의 복잡한 종교적 상황에서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타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교적 불관용이 점증하는 가운데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종교 근본주의 영향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여러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토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시민 사회 단체들과 국가의 관계를 조율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종교 단체들과 운동들과 연계하며, 때로는 그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사회 안의 다양한 관점과 인식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주요 활동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해마다 거행하는 것이다. 브라질 교회협의회는 또한 브라질 천주교 주교회의가 2000년, 2005년, 2010년에 각각 주관한 교회 일치적인 사순 시기 운동을 지원하였다. 제4차 사순 시기 교회 일치 운동은 2016년에 전개될 예정이다.

브라질 교회 일치 운동에 수많은 단체와 기구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교회협의회 브라질 지부'(CLAI), '교회 일치 성경 연구 센터'(CEBI), '복음화와 대중 교육을 위한 교회 일치 센터'(CESEP), '섬김의 교회 일치 조정 기구'(CESE)와 '코이노이아 - 교회 일치의 현존과 섬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브라질 전국 차원의 교회 일치 운동의 주요 전략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브라질 행동 포럼'(Act Forum-Brazil)에도 속하여 있다. 또한 교회들 사이의 만남과 연구 과정, 출판사와 대학교들을 장려하는 '그리스도교 형제애 운동'(화해의 집)도 있다. 폭력을 야기하며 하느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롬 14:17 참조)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일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1968-2015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양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축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몬세랫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벧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머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상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이”(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공교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1999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2000년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데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2007년 “귀머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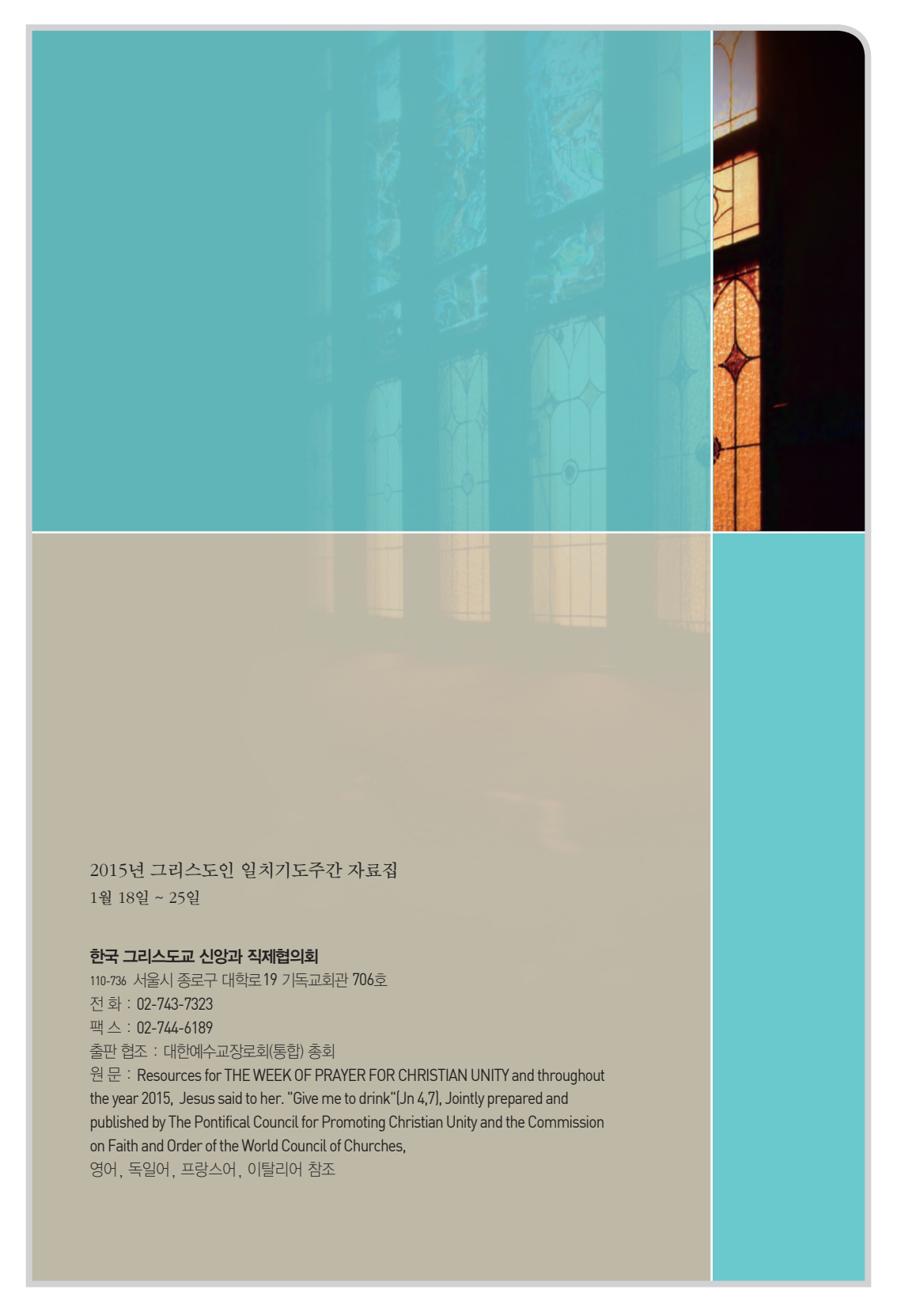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냐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
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오로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
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110-73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7323
팩 스 · 02-744-6189

출판 협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15, Jesus said to her. "Give me to drink"(Jn 4,7),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참조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
1월 18일 ~ 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110-73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화 : 02-743-7323

팩스 : 02-744-6189

출판 협조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원문 :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15, Jesus said to her. "Give me to drink"(Jn 4,7),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참조